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금주

2002년 8월

#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박 금 주

박금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사위원장 許鐵洙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朴壽秀 인

<국문초록>

##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박 금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 및 두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문제 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어떠한가?
- 문제 2.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은 어떠한가?
- 문제 3.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은 어떤 상호관계를 보이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집 대상을 제주도내 J 대학교 남녀 대학생 570명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5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 1. Bem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 Bem은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 도구를 개발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

---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화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이 검사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문항은 남성성, 20문항은 여성성 측정 문항으로 되어있다.

2. 의사결정 유형 검사 : 이 도구는 1984년 Harren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ACDM 중의 하나이다. 각 학생에게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세 가지 유형의 점수가 모두 주어진다. 이 검사는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문항은 합리적, 10문항은 직관적 그리고 10문항은 의존적 유형 측정 문항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 전산처리 하였고 중앙치, 빈도 분포, 표준편차, t검정, F검정, 일원변량분석과 Schffe 검정을 사용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양성성이 가장 높고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대학생의 경우는 양성성,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 유형의 순으로, 여자대학생의 경우는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남성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포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고 남자대학생의 경우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여성성이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낸 점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유형은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의 순으로 나타나 합리적 유형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남녀별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있어서는 순위에 차이가 없었다. 의사결정 방식의 성차에 있어서는 의존적 유형만이 남녀 차이가 나타나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의사결정 시 더 의존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별 의사결정 유형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양성성 정체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남성성은 직관적 의사결정을,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은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로 본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방식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양성성과 여성성이 남성성

과 미분화보다 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양성성과 남성성이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성역할 정체감 하위변인은 남성성 유형이며 여학생 남성성이 직관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성은 의사결정시 덜 직관적인 접근을 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에서는 의사결정시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 중 여성성 유형이 가장 의존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에 따른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방식에서는 남·녀 모두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보고 두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생지도에 필요한 하나의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역할 정체감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역할 정체감 확립을 위한 교육시 남녀 통합교육보다는 각 성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 남자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 중 미분화 유형이 두 번째 순위이고 여자대학생의 경우도 여성성 유형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와 가설 .....	3
II. 이론적 배경 .....	4
1. 성역할 정체감의 개념 및 유형 .....	4
2. 의사결정 유형 .....	11
3.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	18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22
1. 연구대상 .....	22
2. 조사 도구 .....	22
3. 자료처리 .....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6
V. 요약 및 결론 .....	40
1. 요약 .....	40
2. 결론 .....	43
참고문헌 .....	45
Abstract .....	52
부록 .....	56

## < 표 목 차 >

<표Ⅲ-1> 중앙치 분리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23
<표Ⅲ-2> 성역할 정체감의 문항구분 .....	24
<표Ⅲ-3> 의사결정 유형의 문항 구분 .....	25
<표Ⅳ-1> 성별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포 .....	26
<표Ⅳ-2> 성별 의사결정 유형 점수의 차이 .....	29
<표Ⅳ-3>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의 차이 .....	30
<표Ⅳ-4>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비교 .....	32
<표Ⅳ-5>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비교 .....	33
<표Ⅳ-6>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	34
<표Ⅳ-7>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비교 .....	35
<표Ⅳ-8>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점수 차이 비교 .....	35
<표Ⅳ-9> 성역할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점수의 차이 ..	37
<표Ⅳ-10>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비교 .....	38
<표Ⅳ-11>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점수 차이비교 .....	38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태어나면서의 성별화(sex-typing)를 시작으로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하여 두 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강조해온 전통적 성역할 이론은 최근까지도 남성과 여성을 보는 단 하나의 관점이었다. 즉 남성은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여성은 복종적이고 온화하며 양육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준이 남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받았다(안한숙·유계식, 1996).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전통적 이론의 영향으로 자신과 다른 성에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부정되어 남녀 모두가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이나 자존감의 결여 등 사회적·심리적 장애를 경험해야만 했다.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의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가 바뀌어 노동형태와 가족구조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남·여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어 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활동에 참가하는 새로운 성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역할 연구의 변화에 큰 공헌을 한 것이 Bem(1974)의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y)이론이다.



Bem(1974)은 기존의 전통적 관점과는 달리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한 개인에게 공존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를 심리적 양성성이라 하고 양성성이 남성성이나 여성성보다 상황에 더 적응적이고 자아실현성이 높으며 진로발달과 관련하여서도 성차보다는 성역할 정체감과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주었다. 송은경(1994)은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을 이루는 성역할 정체감 발달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진로발달 중에서도 개인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이 성역할 정체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진로발달단계상 수행기에 접어들어 진로 및 교우 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할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과 부모의 기대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미루어온 대학생들이 이러한 순간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은 자명한 일이다. 실제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들 중 하나로는 자기이해의 부족과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장석민 등, 1986). 가까운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시기에 처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미리 밝혀보는 것은 진로지도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고,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어떤 방식의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와 가설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어떠한가?
2.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은 어떠한가?
3.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은 어떤 상호관계를 보이는가?

이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의사결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본 후 두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의 개념 및 유형과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본 후 두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1. 성역할 정체감의 개념 및 유형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여러 특성, 즉 행동양식·태도·가치 및 인성특성을 성역할이라 하며, 그것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성역할 사회화라 한다(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89).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 중 부모, 형제 혹은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며 개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역할을 인식해 나간다(윤진, 1981; 김영희, 1989).

성역할 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 성격특성과 여성적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이재연, 1983). 이는 개인적 정체감의 한 독특한 측면으로 자신의 성에 기대되는 성역할 행동을 보이는 경우 성역할 정체감이 발달되었다고 본다. 즉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사회적 기대에 맞게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기대는 개인의 정체감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남녀의 역할을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다른 성역할로 보는 관점을 전통적 관점이라 하는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양극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하는 과정을 성전형화(sex-typing)라 한다(Cook, 1985a).

이렇게 전통적인 관점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양분하던 방식은 1960년대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성의 평등화가 주장되고 이에 고무되어 각 분야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심리학 분야에서도 Bem 등에 의해 심리적 양성성 개념이 제시되어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양성성 개념에 의하면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게 된다(김영희, 1990). 임용자(1994)는 성역할 개념으로서의 성을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이며 자아정체감 또는 성격정체감으로 정의하고, 남녀의 행동 특성 중 특히 사회적 역할 및 직업적 역할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며 일종의 동일시라고 정의하여 전통적 관점의 생물학적 성과 확연히 구분지었다.

Bem(1974)의 양성성 개념이 제시되기 전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화 이론으로는 정신분석이론(동일시이론), 사회학습이론(강화와 모방이론), 인지발달이론의 세 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성역할 발달의 이론적 측면에서 어떤 변인과 과정이 아동의 성유형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론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위디프스 콤플렉스와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일어나는 동일시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Freud는 아동이 동성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도적인 훈련 없이, 또한 학습하려는 의도가 없이도 같은 성의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성에 적절한 특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aldwin, 1967).

여기서 동일시과정이란 아동이 동성부모의 성격·가치·야망·버릇 등을 모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남아의 경우 외디프스 콤플렉스와 거세불안이 유발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선망과 동일시가 형성되고, 여아는 여성의 해부학적 특징과 남근선망으로 인해 여성 특유의 심리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으로 인해 수동성, 의존성과 같은 여성적 특성이 확립된다. 즉 아동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남·여의 성역할을 구분하게 되고, 이것이 고착되면 여아는 수동적인 여성의 특성, 남아는 능동적인 남성의 특성을 갖게 되는 전통적 성역할 정체감이 발달된다고 본다(Block, 1986).

동일시 이론은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성역할 정체감이 부모를 통해 형성되어 간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송은경, 1994).

두 번째로 W. Mischel(1970)과 A. Bandura(1977)를 비롯한 사회학습 이론가들의 사회학습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성역할 획득의 기제로 관찰학습과 모방을 들고 있다. 다양한 사회화 대리인인 부모·교사·또래·대중매체 등이 아동의 성에 적합한 행동을 선택적으로 보상·강화해 줌으로써 아동들의 성전행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 같은 외부 강화와 함께 아동 자신이 사회의 기대를 인식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스스로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해나가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이다. 즉 관찰을

통한 학습과 인지과정이 성역할 행동을 배워나가는 데 중요하고, 습득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는 상벌을 통한 강화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변인은 사회학습과 인지과정인데(송은경, 1994), 관찰학습과 강화과정의 조합이 의미와 가치, 행동에 있어서의 성차이를 빚어낸다고 보았다(Mischel, 1970).

세 번째로 인지발달 이론은 생물학적인 본능이나 문화적 규준에 의한 특정 훈련이나 학습경험과는 무관하게 아동의 순차적인 인지발달과 성숙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론은 사고과정의 성숙을 통하여 주위환경에 만연되어 있는 성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인지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해 간다고 하였다(Kohlberg, 1966). 즉 성역할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개념적 범주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고, 이러한 범주화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마침내는 자신의 활동·가치·태도·동기 및 생각하는 방법을 결정해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한정신, 1984). 이에 따르면 아이들이 배우는 성역할의 내용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이의 인지성숙도가 성역할에 관한 사고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이 성에 대한 지각을 거쳐 성역할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그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고정관념화 된 성역할을 습득해서 남성은 남성성 정체감을 여성은 여성성 정체감을 발달시킨다

는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성역할 정체감을 제시한 Bem(1974)의 이론을 살펴보자.

Bem(1974)은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는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고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박애선, 1993; 정진경, 1990) 남성성, 여성성의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y)이라는 새로운 성역할 개념을 제시하였다.

심리적 양성성이란 한 개인이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현재 그가 속하는 사회에서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과 남성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양성성을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Kaplan & Sedney, 1980). 달리 표현하면 양성성은 남성적 특징으로 표현되는 도구적 역할과 여성적 특징으로 제시되는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성역할 적응을 할 수 있으며(김은영, 1998), 이들 특성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Bem, 1974; Cook, 1985b).

Bem(1976)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규범이 양성적 성격으로서의 통합 가능성을 억압한다고 보았다. 즉 고도로 성전형화 된 사람은 자기 성에 인습적인 성역할 만을 엄격히 고수하므로 단순히 다른 성에 적절한 역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일상적인 행동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자존감의 결여와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Bem, 1976).

Bem은 양성성을 밝히려는 시도의 하나로 성역할 측정도구 (BSRI; Bem Sex Role Inventory)를 제작하여 실시함으로써 성역할 정체감이 단순한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한 개인의 심리적 차이임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Bem(1974)의 양성성 이론에 따르면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유형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남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남성다운 특징들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 즉 적극성·활동성·성취 지향적·독립성·공격성·경쟁성·자기신뢰·주도력·통솔력·지배성·권위지향성·야망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성 변인의 점수는 높고 여성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둘째, 여성성 정체감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여성다운 특징으로 인정되는 특성인 양육성·순종성·의존성·민감성·동정성·변덕스러움·애교심·질투심·말이 많음·쉽게 울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성 변인의 점수는 높고 남성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셋째,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있고 도구적인 동시에 표현적일 수 있어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이다.

넷째, 미분화 정체감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남성성 변인과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

Bem(1974)의 심리적 양성성 이론은 제시되자 말자 이를 받아



들여 밝히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성적인 사람일수록 도덕성 발달(Block, 1973)과 사회적 안정도와 지적 능력이 높으며(Berzins, 1975), 자아실현성(Rogers, 1978) 및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m, 1977; Spence et al. 1975; 이재연, 1983). 또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적응양상에 관한 연구(D. Selva & J. B. Dusek, 1984), 성역할 정체감과 정신건강과의 관련분석 연구(전은경, 1992),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과의 관계검증(이홍립, 1985)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 양성성의 사람이 심리적 적응점수가 높고, 정신건강 수준이 높으며 자아실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따르면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사람보다 상황의 요구에 따라 더 유연하게 반응하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남을 지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돌보아 줄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나약하지 않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사회에서 성실히 성취를 이루어 나가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Gilligan, 1982). 성역할을 성차보다는 개인차로 보는 경향의 남녀간의 유사성 및 양성성에 관한 연구들은 그 관점과 영역을 확대하여 자아개념의 대안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성역할과 관련된 성격 변인으로 사용하여 진로선택과 진로결정 등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즉, 심리적 양성성 개념은 서구의 지나친 개인주의 부산물이며 전통적인 성역할의 부적당한 대치물에 불과하다(Cook, 1985a)

는 주장과 심리적 양성성의 긍정적인 면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높은 남성성이며 남녀 모두에게 남성성은 여성성보다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고(Taylor & Hall, 1989), 높은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성이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이홍림, 1985) 양성성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로운 결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을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기대하는 성역할을 어느 정도 자신의 성과 동일시하여 내재화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성역할 정체감 이론 중 심리적 양성성 이론을 제시한 Bem의 관점을 받아들여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관점의 남녀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바람직한 특성을 모두 지닌 양성성과 두 특성을 모두 개발하지 못한 미분화유형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남녀를 성별의 차가 아니라 개인차로 구별하고 남녀를 서로 다른 두 성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 2.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결정하는 행위로 의사결정이론은 진로

발달이론의 한 부분을 이룬다. 즉 진로발달이란 일련의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Gelatte(1962)는 말하고 있으며, 미국의 직업정보관리위원회(NOICE, 1986)는 진로발달을 일생을 통하여 어떤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심리적·사회적·교육적·물리적·경제적 요인들과 심지어는 우연적 요인들까지를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했다(송은경, 1996).

진로발달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진로선택이론으로 '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진로를 갖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발달과정과 의사결정자의 특징에 초점을 둔 이론이며, 둘째는 진로결정이론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로의 결정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이를 장석민(1990, 1991)의 분류 방식으로 보면 구조론적 관점과 발달론적 관점으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중 구조론적 입장은 진로발달을 개인의 성격구조, 심리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요인을 합리적으로 연결해 보려는 입장이다. 한편 발달론적 입장은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연속으로 보고 각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의식, 진로발달수준과 같은 개인 내적 발달에 초점을 두었다.

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결정과정(decision process)에 초점을 두는 진로결정 이론에 대해 이재창(1976) 등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과 직업의 선택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로 규정하였다. 진로결정 이론의 하위요인으로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유형과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이나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결정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진로결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고전적 의사결정이론에 기초한 의사결정모형의 연구(Gelatte, 1962)와 진로결정에서 개인차를 확인하고 구별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Chartrand & Camp, 1991) 그 중 본 연구의 기본적 틀이 되는 의사결정모형 이론인 Gelatte(1962)의 이론과 Tiedeman 과 O'Hara(1963)의 이론을 살펴본 후 Harren(1979)의 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Gelatte(1962)의 의사결정이론을 살펴보자. 이 이론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직업 중에서 자신의 투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보상은 금전을 포함, 지위·명예·보람·봉사·욕구충족 등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안한숙·유계식, 1996).

Gelatte(1962)는 의사결정과정을 목적의식·정보수집·가능한 대안의 열거·각 대안의 결과 예측·각 대안의 실현가능성 예언·가치평가·의사결정·평가 및 재투입의 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김충기, 1988; 이정근, 1988). 마지막 단계인 평가에서 얻은 결과는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자료로서 필요한 과정에 재투입된다. 따라서 이 의사결정은 주기적·계속적 성격을 띠게 되며 의사결정자가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진로지도에 효율적인 도구로 쓰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의사결정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객관화시

키는가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두 번째로 Tiedeman과 O'Hara(1963)의 이론을 살펴보면, 그들은 진로발달에서 진로결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았으며(정채기, 1991) 진로발달을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이전근, 1988; 김충기외, 1993). 따라서 직업선택 및 진로발달의 목표를 일에 관한 자아정체감을 형성, 발달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아 삶의 과정과 진로결정을 불가분의 것으로 보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개인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송은경, 1996). Tiedeman과 O'Hara는 직업의사결정을 분화(diffrentiation)와 통합(integration)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일곱 단계는 다시 예상기와 이행기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탐색단계·구체적 단계·선택단계·명료화단계와 적응단계·개혁단계 및 통합단계로 나뉜다. 이 중 예상기는 네 단계로 나뉘는데 첫째, 탐색단계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이고 둘째, 구체적 단계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의 장단점들을 비교하고 서열화 하여 조직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셋째 단계는 선택단계로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한가지를 선택하며 넷째 단계인 명료화단계에서는 선택을 이행하기 전에 선택 가능한 결과들을 명료화해 보고 예측해 보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이행기의 단계는 다시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섯째는 적응단계이며 이 때는 개인의 선택을 수동적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고 여섯째, 개혁단계에서는 종래의 수동적 자세에서 보다 주장적 자세로 변화하여 가치관을 발달시키고 집단의 목

표를 자신의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이 모든 단계들의 통합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인생 중에서 진로를 선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했다. 분화와 통합의 연속적 과정을 직업적 정체감 형성의 바탕으로 삼은 Tiedeman과 O'Hara(1963)의 이론은 진로 결정을 통해 진로발달이 이루어지며 진로발달은 교육 또는 직업적 추구에 있어서 개인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방향 속에서 잘 적응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개념화하고 있다(Kass, 1980). 이 이론은 진로의 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 이론을 검증할 경험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다(고향자, 1992, p.16).

마지막으로 Harren(1979)의 이론을 살펴보면 그는 대학생 연령의 진로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로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 포함되는 변인을 고려한 광범위한 모형을 개발했다. 그 모형의 네 가지 변인들은 의사결정과정·의사결정자의 특징·당면한 발달과업·의사결정상황들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과정은 인식·계획·확신·이행의 네 단계를 거쳐 발전되는 과정이다. 둘째, 의사결정자의 특징이란 자아개념과 이론의 개념적 틀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한 것으로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정 방식을 말하며 합리적·의존적·직관적 의사결정 유형들이 있다. 셋째로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자율성과 대인관계성숙 및 목적의식이 포함된다. 이중 자율성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지지와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대인관계의 성숙이란 타인과 융통성 있게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을 의미하

며 목적의식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지각하고 미래직업 세계에서 자신을 인식해 보고 삶의 양식을 계획하는 것이다. 넷째로 의사결정상황이란 상황적 요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대인평가 즉, 타인으로부터 받은 긍정·부정적 피드백을, 심리상태는 방어적 행동유형과 상태불안 수준을 의미하며 과업조건으로는 이행 전 이용할 시간의 양과 유용한 대안들 및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의미하며 전후배경조건이란 타인들의 역할을 의미한다.

Harren(1979)은 Tiedeman과 O'Hara(1963)의 진로의사결정 모형을 재개념화 하여 진로의사결정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이 이론을 경험적으로 측정하여 자신의 진로의사결정모형을 발전시켰다(고향자, 1992, p. 16).

Harren(1979)이 개발한 의사결정 유형의 세 가지 변인은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Philip et al.,1985)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합리적 유형(rational style) ; 이 유형은 논리적 사고를 하며 확장된 시간 전망을 가지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수용한다. 결정하기 이전과 현재 및 결정의 결과를 예상한다. 결정을 할 때 조심스럽고 철저하며 객관적 방법으로 자료 및 정보를 모은다.
- ② 직관적 유형(intuitive style) ; 충동적으로 여겨지는 감정적 요소를 종종 의사결정 시 고려하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수용한다. 그러나 공상과 현재의 감정이 결정 순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정적 자기인식에 강하게 의존한다.
- ③ 의존적 유형(dependent style) ; 선택의 책임을 외부의 사

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긴다.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Harren, 1979).

이와 같은 Harren의 분류체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와 행동의 분류이며 이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은 독립적이다. 즉, 한 개인이 주어진 의사결정 과업에 접근할 때는 세 가지 유형의 요소가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면서, 한 가지 우세한 유형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Philip et al, 1985).

이 의사결정 유형은 Harren의 진로의사 결정 검사(ACDM: Assessment Career Decision Making; Harren, 1980, 1984)중에서 의사결정유형 검사(Decision Making Styles)에서 측정된다.

Harren(1979)은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진로결정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Lunneborg(1978)는 합리적 유형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합리적 유형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의존적 유형을 억제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했다(고향자, 1992).

의사결정유형과 다른 변인과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사결정 유형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Lunneborg, 1978; 한상백, 1984; 최유산, 1986)는 연구와 학년 소재지·성장지·성적 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경민, 1983; 한상백, 1984)는 연구, 자아개념이 진로의사결정 행동유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이경민, 1983)는 연구들이 있다. 또 교육수준과 소득 및 가족생활단계에 따라 의사결정유형에 차이가 있다(이형실, 1985)는 연구 결과와 부모의 학력과 가족관계에 의해 의사결정유형이 영향을 받는다(서병숙·임정빈, 1978)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의



사결정유형 세 가지 중 합리적 유형이 진로결정에 이르는 최상의 접근이라는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Bluestein, 1987), 합리적 유형이 바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직관적 유형에 관한 이론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의존적 유형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합리적 유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직관적 유형의 영향 그리고 의존적 유형의 부적응 등을 연구하는 것이 의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유형을 진로결정의 한 과정으로 보았고 그 개념을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행동방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 유형의 모형으로는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 Harren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 3.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성역할 정체감이론과 의사결정 유형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이론들로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본 연구(이경민, 1983; 한상백, 1984; 최유산, 1986)와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두 이론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송은경, 1994).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남자는 주로 남성성을, 여자는 주로 여성성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성차 연구들을 주로 시도하였기 때문이다(안한숙·유계식, 1996).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

서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이 확인되었고, 바람직한 남성성과 바람직한 여성성을 함께 가지는 심리적 양성성이란 성역할 정체감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심리적 양성성은 정서적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자기지각개념을 의미하는 일종의 자아개념임이 밝혀져 (Farmer, 1985) 여러 분야의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이어졌다.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의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진로에 성차가 있다는 연구들과 성차가 없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다(안한숙·유계식, 1996).

Harren 등(1978)은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단계과정, 혹은 전공선택에서 어떤 성차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과 성역할 태도는 전공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인과적 추론을 검증하고 있다. 즉 성은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성역할 태도와 인지유형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은 전공선택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은 덜 만족스런 전공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차보다는 개인차를 중요시하는 견해에 따라 자아개념의 대안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성역할과 관련된 성격요인으로 사용하여 여성의 진로선택과 진로동기 및 성취동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김희정(1986)은 의사결정이 진로발달이론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한 개인의 진로성숙 혹은 직업발달에 영향을 주며 성역할 정체감이 청년기 발달과정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하였는데 이 결과를 통해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간의 관련을 추론해볼 수 있다. 박아청(1990)은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으며, 송은경(1994)은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직접적인 관련 연구에서 의사결정 유형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을 먼저 확립해야 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룬 양성성 정체감이 의사결정시 바람직한 정체감임을 보고하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희정(1986)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한 직업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성별은 직업선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변인이라고 했다. 또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직업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직업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인(199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인과적 모델에서도 성역할 정체감은 성취동기 예언에 고유한 기여를 하였고, 성취동기는 직업포부 수준의 직접적인 설명에 고유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oreland(1989)의 진로결정단계를 통한 과정과 특정한 진로결정유형의 이용에 대한 성역할 자기개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양성성 집단의 점수가 미분화 집단의 점수에 비해 대학·직업·전공선택 및 합리적·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안한숙과 유계식(1996), 이재창과 유계식(1996), 유계식과 이재창(1997)은

일련의 논문에서 진로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으며 남성성 유형과 양성성 유형의 개인들이 성취동기가 높고 진로결정 유형이 합리적이며 그 결정수준도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지도시 성차에 의한 지도보다는 학생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더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에 대한 남녀간 성차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없으나 두 변인들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송은경,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의사결정 유형의 성차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들간의 관련을 밝혀봄으로써 두 변인들 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J 대학교 남녀 대학생들 중 신입생인 1학년과 4학년을 제외한 2, 3학년 재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는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565 부 중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부실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552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266명(48.2%)이고, 여학생이 286명(51.8%)이었다.

#### 2. 조사 도구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 검사지와 의사 결정 유형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 1) 성역할 정체감 검사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S. L. Bem이 개발하고 진순덕(1989)이 번역 사용한 검사지 BSRI(Bem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남성성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 20개,

여성성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 20개, 중성성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 20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검사에서는 남성성 변인 20개 문항과 여성성 변인 20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류 방식은 중앙치 분리법(Median-Split Method)을 사용하여, 중앙치를 기준으로 남성성 변인의 점수가 높고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 정체감으로, 남성성 변인의 점수가 낮고 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높으면 여성성 정체감으로, 남성성·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 정체감으로, 남성성·여성성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III-1> 중앙치 분리법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류

		여성성 점수	
		←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남성성 점수	↑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양성성 정체감	남성성 정체감
		여성성 정체감	미분화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남성성은 .90, 여성성은 .82이다. 성역할 정체감의 문항 구분은 다음 <표III-2>와 같다.

<표Ⅲ-2> 성역할 정체감의 문항구분

구 분	문 항
남성성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여성성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 2) 의사결정 유형 검사

의사결정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 Harren(1979)이 개발한 의사결정 유형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Harren의 진로결정 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 검사(Decision Making Styles)이다. 이 검사지는 개인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합리적 유형·직관적 유형·의존적 유형의 하위 척도 각각에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다’, ‘아니다’의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자는 세 유형의 점수를 다 갖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는 주어지지 않는다. 의사결정 유형 검사의 신뢰도는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계수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각각 .78, .83, .84 반분 신뢰도가 각각 .83, .77, .81이다. 의사결정 유형의 문항 구분은 다음 <표Ⅲ-3>과 같다.

<표Ⅲ-3> 의사결정 유형의 문항 구분

구 분	문 항
합리적 유형	1. 3. 5. 10. 13. 15. 17. 22. 25. 27.
직관적 유형	2. 7. 8. 11. 16. 19. 21. 23. 28. 30.
의존적 유형	4. 6. 9. 12. 14. 18. 20. 24. 26. 29.

### 3. 자료처리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되었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중앙치, 빈도분포, 표준편차, t 검정, F검정,  $\chi^2$  검정,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 검정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을 조사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성별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유형별 빈도와 백분율 및  $\chi^2$  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IV-1> 성별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포

구 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계	$\chi^2$
남	46 (17.6%)	47 (17.9%)	91 (34.7%)	78 (29.8%)	262 (100.0%)	15.56 **
여	59 (21.1%)	85 (30.4%)	72 (25.7%)	64 (22.8%)	280 (100.0%)	
합계	105 (19.4%)	132 (24.1%)	163 (30.2%)	142 (26.3%)	542 (100.0%)	

\*\* p<.01

대학생들의 성별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을 나타낸 <표 IV-1>을 보면 전체적으로 양성성 유형(30.2%)이 16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미분화(26.3%)가 142명, 여성성

(24.1%)이 132명, 남성성(19.4%) 105명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남자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양성성이 91명(34.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미분화 78명(29.8%), 여성성 47명(17.9%), 남성성 46명(17.6%)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여자대학생의 경우는 여성성이 85명(30.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양성성 72명(25.7%), 미분화 64명(22.8%), 남성성 59명(21.1%)의 순을 보여 남자대학생은 양성성이 가장 많고 여자 대학생은 여성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 두 변인간의 평균 차이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chi^2 = 15.56$ )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연구한 안한숙·유계식(1995)의 연구 결과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안한숙·유계식(1995)의 연구결과를 보면 양성성, 미분화, 남성성, 여성성의 순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남성성과 여성성의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한 김영희(1989)의 연구결과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송은경(1994)의 연구결과는 미분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유형의 순이었다.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별 성역할 정체감 분포의 특징으로는 남학생 남성성이 가장 낮은 것과 여학생 여성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여성성은 성역할 정체감 유형 중 가장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는 변인이므로 여학생의 여성성이 높다는 사실과 남학생의 남성성이 낮다는 것은 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설 2.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별 의사결정 유형 점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를 보면 성별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대학생은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 $\bar{X}=6.91$ ,  $SD=2.58$ ), 직관적( $\bar{X}=5.69$ ,  $SD=2.48$ ), 의존적( $\bar{X}=4.50$ ,  $SD=2.71$ )의 순으로 하며, 여자대학생들도 이와 같은 순서인 합리적( $\bar{X}=7.09$ ,  $SD=2.31$ ), 직관적( $\bar{X}=5.73$ ,  $SD=2.47$ ), 의존적( $\bar{X}=5.27$ ,  $SD=3.0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때 남녀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유형의 순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결정 유형별 성차를 보았을 때는 의존적 유형만이 유의하게 나타나 ( $t=-3.10$ ) 의사결정 시 여자대학생( $\bar{X}=5.27$ ,  $SD=3.04$ )이 남자대학생( $\bar{X}=4.50$ ,  $SD=2.71$ )보다 더 의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이 더 의존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은 성 역할 정체감에서 여학생의 여성성이 높은 점과 더불어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과는 일치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변화가 요구되는 현실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IV-2> 성별 의사결정 유형 점수의 차이

구 분		N	$\bar{X}$	SD	t
합리적 의사결정	남	259	6.91	2.58	-.83
	여	279	7.09	2.31	
직관적 의사결정	남	231	5.69	2.48	-.17
	여	267	5.73	2.47	
의존적 의사결정	남	259	4.50	2.71	-3.10 **
	여	282	5.27	3.04	

\*\* p<.0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유형 방식을 조사한 고향자(1992)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향자(1992)의 결과는 합리적, 의존적 유형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고 직관적 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존적 유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의사결정 방식에 성차가 있는지를 연구해온 논문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의사결정 유형에 성차가 없음을 밝힌 연구(Lunneborg, 1978; 한상백, 1984; 안한숙·유계식, 1995)와 성차가 있음을 밝힌 연구(최유산, 1986; 송은경, 1994)가 있다.

### 가설 3.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은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점수와 합리적·직관적·의존적 유형 점수의 차이와 F검정 및 Scheffé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IV-3>, <표IV-4>, <표IV-5>에 나타나 있고 성별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의사결정 유형간의 비교 결과는 <표IV-6>에서 <표IV-11>까지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3-1.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점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F 값 및 사후검정의 결과는 다음의 <표IV-3>와 같다.

<표IV-3>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의 차이

구 분	N	$\bar{X}$	SD	F	Scheffé		
					1	2	3
남성성	104	6.77	2.45	13.92 **	*	*	
여성성	129	7.08	2.49			*	*
양성성	160	7.83	2.07				*
미분화	135	6.07	2.48		*		
계	528	6.94	2.37				

\*\*p<.01

<표IV-3>을 보면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합리적 유형 점수가  $p <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고 있다( $F=13.92$ ).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의 점수 분포를 보면 양성성( $\bar{X}=7.83$ ,  $SD=2.07$ ) 유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여성성( $\bar{X}=7.08$ ,  $SD=2.49$ ), 남성성( $\bar{X}=6.77$ ,  $SD=2.45$ ), 미분화( $\bar{X}=6.07$ ,  $SD=2.48$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에 의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는데, 남성성과 양성성 유형,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이질 집단이며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이질집단으로  $p <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집단은 동질집단이다. 따라서 양성성과 여성성 유형이 동질집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남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가장 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는 <표IV-4>와 <표IV-5>에 나타나 있다.

<표IV-4>와 <표IV-5>를 보면 남자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점수는 양성성( $\bar{X}=7.82$ ,  $SD=2.21$ ), 여성성( $\bar{X}=7.33$ ,  $SD=2.71$ ), 남성성( $\bar{X}=6.48$ ,  $SD=2.61$ ), 미분화( $\bar{X}=5.76$ ,  $SD=2.49$ )의 순으로 나타났고( $F=10.39$ ) 여자대학생의 경우는 양성성( $\bar{X}=7.85$ ,  $SD=1.89$ ), 남성성( $\bar{X}=7.00$ ,  $SD=2.32$ ), 여성성( $\bar{X}=6.94$ ,  $SD=2.37$ ), 미분화( $\bar{X}=6.46$ ,  $SD=2.43$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F=4.39$ ) 남녀 모두  $p <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양성성 유형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미분화가 가장 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의 차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살

펴보기 위한 Scheffe 검정 결과 남학생의 경우 남성성과 양성성, 여성성과 미분화가  $p <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이질 집단이며, 양성성과 미분화도 이질집단이며 다른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나타나 양성성과 여성성 유형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남성성과 미분화가 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양성성과 미분화 집단만이 이질집단이며 나머지는 모두 동질집단으로 밝혀져 의사결정시 양성성과 남성성 유형이 더욱 합리적으로 여성성과 미분화가 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논문과 비교해 보면 안한숙·유계식(1995)의 연구결과는 남성성 유형과 양성성 유형이 여성성, 미분화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송은경(1994)의 연구에서도 남성성은 합리적이면서 덜 의존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표IV-4>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비교

구 분	N	$\bar{X}$	SD	F	Scheffe		
					1	2	3
남성성	46	6.48	2.61	10.39 **	*	*	
여성성	46	7.33	2.71			*	*
양성성	89	7.82	2.21				*
미분화	74	5.76	2.49		*		
계	255	6.85	2.51				

\*\* $p < .01$

<표IV-5>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비교

구 분	N	$\bar{X}$	SD	F	Scheffé	
					1	2
남성성	58	7.00	2.32	4.39 *	*	*
여성성	83	6.94	2.37		*	*
양성성	71	7.85	1.89			*
미분화	61	6.46	2.43		*	
계	273	7.06	2.30			

\*p<.0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특이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가설 3-2.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에 따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점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F 값 및 사후검정의 결과는 <표IV-6>에, 성별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평균차이와 사후검정은 <표IV-7>, <표IV-8>에 제시되어 있다.

<표IV-6>을 보면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



의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 = 2.71$ ), 가장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은 남성성( $\bar{X} = 6.14$ ,  $SD = 2.34$ )이고 다음으로 양성성( $\bar{X} = 5.79$ ,  $SD = 2.67$ )과 미분화( $\bar{X} = 5.79$ ,  $SD = 2.34$ )가 같은 점수이며 마지막으로 여성성( $\bar{X} = 5.21$ ,  $SD = 2.44$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6>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구 분	N	$\bar{X}$	SD	F	Scheffe	
					1	2
남성성	95	6.14	2.34	2.71 *		*
여성성	121	5.21	2.44		*	
양성성	150	5.79	2.67		*	*
미분화	122	5.79	2.34		*	*
계	488	5.73	2.45			

\* $p < .05$

사후검증 결과는 남성성과 여성성 유형만이 이질집단이며 나머지 집단들은 모두 동질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시 남성성 유형이 가장 직관적으로 여성성이 가장 덜 직관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 < .05$ ).

이를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점수를 알아보면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대학생은 미분화( $\bar{X} = 6.09$ ,  $SD = 2.21$ ), 남성성( $\bar{X} = 5.80$ ,  $SD = 2.48$ ), 양성성( $\bar{X} = 5.59$ ,  $SD = 2.77$ ), 여성성( $\bar{X} = 5.14$ ,  $SD = 2.35$ )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표 IV-8>에 나타난 여자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유형 점수는 남성성이

6.3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양성성( $\bar{X}=6.00$ ,  $SD=2.57$ ), 미분화( $\bar{X}=5.44$ ,  $SD=2.45$ ), 여성성( $\bar{X}=5.24$ ,  $SD=2.50$ )의 순으로, 이는  $p<.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2.88$ ). 사후검정결과는 남성성과 여성성만이 이질 집단으로  $p<.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집단들은 모두 동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성성이 가장 직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성이 덜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IV-7>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비교

구 분	N	$\bar{X}$	SD	F
남성성	41	5.80	2.48	1.34
여성성	43	5.14	2.35	
양성성	78	5.59	2.77	
미분화	65	6.09	2.21	
계	227	5.66	2.45	

<표IV-8>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점수 차이 비교

구 분	N	$\bar{X}$	SD	F	Scheffé	
					1	2
남성성	54	6.39	2.22	2.88 *		*
여성성	78	5.24	2.50		*	
양성성	72	6.00	2.57		*	*
미분화	57	5.44	2.45		*	*
계	261	5.76	2.44			

\* $p<.05$

가설 3-3.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 대학생들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 <표IV-9>에 제시되어 있고 성별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점수 차이 비교는 <표IV-10>과 <표IV-11>에 제시되어 있다.

<표IV-9>를 보면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점수 차이가  $p <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22.69$ ).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의 분포를 보면 여성성 유형( $\bar{X}=6.02$ ,  $SD=2.88$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미분화( $\bar{X}=5.60$ ,  $SD=2.84$ ), 양성성( $\bar{X}=4.28$ ,  $SD=2.59$ ), 남성성( $\bar{X}=3.42$ ,  $SD=2.7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Scheffé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성성과 여성성 간에  $p <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남성성과 미분화 유형간, 여성성과 양성성 유형 간, 양성성과 미분화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동질집단으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또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동질집단이며 따라서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가장 의존적이며 남성성과 양성성이 덜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9>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

	N	$\bar{X}$	SD	F	Scheffé	
					1	2
남성성	104	3.42	2.72	22.69 **	*	
여성성	128	6.02	2.88			*
양성성	161	4.28	2.59		*	
미분화	138	5.60	2.84			*
계	531	4.83	2.76			

\*\*p<.01

성별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표IV-10>에 나타난 것처럼 여성성( $\bar{X}=5.44$ ,  $SD=2.79$ ), 미분화( $\bar{X}=4.88$ ,  $SD=2.52$ ), 양성성( $\bar{X}=4.24$ ,  $SD=2.69$ ), 남성성( $\bar{X}=3.18$ ,  $SD=2.46$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p<.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F=6.58$ ). 집단 간의 세부적 차이를 밝히기 위한 Scheffé 검정 결과 남성성과 여성성간에 또 남성성과 미분화 유형간에  $p<.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집단들은 동질집단인 것으로 드러나 여성성과 미분화가 가장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의 경우 <표IV-1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미분화유형( $\bar{X}=6.48$ ,  $SD=2.98$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성성( $\bar{X}=6.33$ ,  $SD=2.89$ ), 양성성( $\bar{X}=4.33$ ,  $SD=2.48$ ), 남성성( $\bar{X}=3.61$ ,  $SD=2.91$ )의 순이며 이는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17.24$ ). 사후검정결과 남성성과 양성성,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동질집단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집단들은 이질집단인 것으로 밝혀져 여성성이 가장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녀대학생 모두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가장 의존적이며 양성성과 남성성 유형이 가장 덜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표 IV-10> 남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점수의 차이비교

	N	$\bar{X}$	SD	F	Scheffé	
					1	2
남성성	45	3.18	2.46	6.58 *	*	
여성성	45	5.44	2.79			*
양성성	89	4.24	2.69		*	*
미분화	76	4.88	2.52			*
계	255	4.44	2.6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p < .05$

<표 IV-11>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별 의존적 의사결정 점수 차이비교

	N	$\bar{X}$	SD	F	Scheffé	
					1	2
남성성	59	3.61	2.91	17.24 **	*	
여성성	83	6.33	2.89			*
양성성	72	4.33	2.48		*	
미분화	62	6.48	2.98			*
계	276	5.19	2.82			

\*\* $p < .01$

가설 3의 검정 결과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 하위요인(합리적, 직관적, 의존적)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성

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성이며 남성성은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여성성과 미분화는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고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어떠한가?
2.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은 어떠한가?
3.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사결정 유형은 어떤 상호관계를 보이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1.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에 따라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내 J 대학교 남녀 대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고 회수된 질문지 중 552부의 질문지를 최종연구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측정 도구로는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em의 BSRI(Bem Sex Role Inventory) 중 남성성과 여성성 각 20문항씩 40문항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고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Harren이 제작한 의사결정척도 중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위한 의사결정 유형검사(ACDM; Decision Making Style)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t 검정, F 검정과  $\chi^2$  검정 및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가설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의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양성성(30.1%), 미분화(26.3%), 여성성(24.1%), 남성성(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대학생의 경우 양성성(34.7%), 미분화(29.8%), 여성성(17.9%), 남성성(17.6%)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대학생의 경우는 여성성(30.4%), 양성성(25.7%), 미분화(22.8%),



남성성(19.4%)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로 차이가 있음( $\chi^2 = 15.56, p < .01$ )이 증명되었다.

가설 2의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대상 대학생들의 성별 의사결정 유형 점수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합리적 유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순이었다. 남녀별 의사결정 유형점수는 남자의 경우 합리적( $\bar{X} = 6.91$ ), 직관적( $\bar{X} = 5.69$ ), 의존적( $\bar{X} = 4.50$ ) 유형의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도 합리적( $\bar{X} = 7.09$ ), 직관적( $\bar{X} = 5.73$ ), 의존적( $\bar{X} = 5.27$ ) 유형의 순으로 나타나 순위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녀별 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의존적 유형에서만 성차가 있었고( $t = -3.10, p < .01$ )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따라서 의사결정시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더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하위 요인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대상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하위요인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양성성( $\bar{X} = 7.83$ )과 여성성( $\bar{X} = 7.08$ ) 집단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미분화( $\bar{X} = 6.07$ )와 남성성( $\bar{X} = 6.77$ ) 집단이 가장 덜 합리적이었다( $F = 13.92, p < .01$ ).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은 남성성( $\bar{X} = 6.14$ )이며

여성성( $\bar{X}=5.21$ )이 가장 덜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71, p<.05$ ).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은 여성성( $\bar{X}=6.02$ )과 미분화( $\bar{X}=5.60$ ) 유형이며 남성성( $\bar{X}=3.42$ )과 양성성( $\bar{X}=4.28$ )이 가장 덜 의존적이었다( $F=22.69, p<.01$ ).

종합적으로 양성성이 가장 합리적이면서 가장 덜 의존적이고 남성성 집단은 가장 직관적이면서 덜 의존적이고 여성성 집단과 미분화집단이 가장 의존적이면서 덜 합리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의 순위는 양성성, 미분화, 여성성, 남성성의 순이었다. 대학생 시기는 성역할 정체감이 안정기에 들어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대학생들에게서 양성성이 가장 높이 나타났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 여성성이 가장 높다는 점은 의사결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여학생 여성성 유형에 대해 여성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기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둘째,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유형을 보면 의사결정 시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인 순서를 보인다. 그러나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의존적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좀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방식을 보면 양성성 정체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남성성은 직관적 의사결정을,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은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성별로 본 성역할 정체감별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 방식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이 남성성과 미분화보다 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 여학생은 양성성과 남성성이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보다 더 합리적이다.

성역할 정체감별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방식에서는 남성성이 가장 직관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가장 높으며 여성성은 덜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의존적 유형에서는 의사결정 시 여성성이 가장 의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성차에 따른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 방식을 보면 남, 녀 모두 여성성과 미분화 유형이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은(2001). “성통합 교육을 통한 생도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제 6권 제 2호, 13.
- 김봉환·김병석·정철영 공저(201).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영희(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 제 27집, 153-182.
- \_\_\_\_\_ (1990).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1998). 성역할 정체감 및 성취동기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아(199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88).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 김태련·장휘숙(1987).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희란(2001). 대학생의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자아효능감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1986). 직업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외(1996). “진로의사결정훈련 지침서 및 정보자료”,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아청(1990).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애선(1993).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은경(1994).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유형간의 관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한숙·유계식(1996a). “성취동기와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제10집, 아주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유계식·이재창(1996b). “성취동기,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홍익대학교)」, 13, 114-145.
- \_\_\_\_\_(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 9권, 제 1호, 259-288.
- 윤정혜(1992). 자아존중감·성역할 정체감·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1). “남녀 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15집, 21-35.
- 이경민(1983). 여대생의 진로의사 결정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재(200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경원전문

-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제 10집.
- 이병인(1990). 가정환경, 성역할정체감, 성취동기와 직업포부수준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임(2000). 대학생의 전공 및 직업선택에 따른 직업적 자기 효능감·성역할 정체감·사고 유형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례(1990).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1983). “여자 대학생의 장래 계획과 성역할 정체감 및 존중감”, 「아세아여성연구」 제 22권, 87-97.
- 이재창·임용자(1995). “성역할에 관련된 심리적 병인이 여대생의 전통적 진로 유형 및 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 7권 제 1호, 1-19.
- 이재창·유계식(1996). “성취동기·성역할 정체감·진로결정 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홍익대학교, 13, 111-145.
- 이정근(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 : 성원사.
- 이형실(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림(1985).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실현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두순(2000).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원미사.
- 임용자(1994). 성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재련(1988). 청소년 자아 개념의 발달적 특성 탐색 연구, 숙명

-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서혜경·임재석·김홍원·하종덕(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 TM 86-7.
- 장하경·서병숙(1991). “성역할 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 87집, 167-179.
- 전은경(1992). 고등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 여성학」, 3, 132-170.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82-92.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89).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 진순덕(1989). 가정환경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유산(1986). 중학생들의 진로의사 결정 요인과 유형에 관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전경구·이창호(1991). “한국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 생활 적응”. 학생생활연구」.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한상백(1984). 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roba, T.(1977). "types of Decision Making and Their Use: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5(2), 149 158.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J., Eaglewood

- Cliffs, Prentice Hall Inc.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lock, J. H.(1973). "Conception of Sex-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5-526.
- Blustein, D. L.(1987). "Decision Making Styles and Vocational Maturity" An Alterna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61-71.
- Cook, E. P.(1985a). "Androgyny: A Goal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567-571.
- Cook, E. P.(1985b). *Psychological Androgyny*. N.Y. : Pergamon Press.
- Farmer. H. S.(1985). "Model of Career and Achievement Motivation for Woman and M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3, 363-390.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a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ren, V.A., Kass, R.A., Tinsley, E. A. & Moreland, J. R.(1978). "Influence of Sex-Role Attitudes and Cognitive Styles of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5, 390-398.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Kohlberg, L.A.(1966). *A Cognitive Development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 Stanford University Press.
- Kaplan, A.G. & Sedney, M.A.(1980). *Psychology and Sex-roles : An Androgyny Perspective*, Boston : Little, Brown.
- Lunneborg, P. W.(1978). "Sex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4, 299-305.
- Mischel, W.(1970). "Sex-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E. Mussen(ed.)", *Ca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3rd ed. New York; Wiley.
- Mitchell, L.K. & Krumboltz, J.D. (1984).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Counseling", In Brown, S.D. & Lent, R.W.(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38-280.
- Phillips, S. D., Friedlander, M. L., Pazienza, N.J. & Kost, P.P.(1985). "A Factor Analytic Investiga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106-115.
- Spence, J.T. & Helmreich, R.L., &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f Sex Role Attitud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2, 29-39.
- Tiedeman, D.V. & O'Hara, R.P.(1963). *Career Development* :

Choice and Adjustment, Princeton, N.J.

Tylor, M. & Hall, J. A.(1982). "Psychological Androgyny:  
Theories, Method, and Conclusions", Psychological Bulletin,  
92.



## Abstract

### Research on Sex-Role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f College Students

Park, Kum-ju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research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alities through questionnaires in order to find sex-role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f college students in relations to the two variables, analyze the results, and suggest the basic data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and directing college students correctly.

The following tasks were established in this aim.

- Task 1. What is the distribution of sex-role identity among college students?
- Task 2. What is the distribution of college students' decision-making style?
- Task 3.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cision-making style by sex-role identity?

The sample group was 570 male and female students of J college in Jejudo and finally 552 students were selected as a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sample group in order to verify these tasks. The following methods were used to examine the college students' sex-role identity and decision-making style.

1. Bem's Sex Role Inventory : This tool was made by Bem to measure sex-role identity type. In this measurement, she divided students into 4 different identity groups according to their masculinity, femininity, androgyny and undifferentiated.

This tool is consisted of 40 questions: 20 for masculinity, 20 for femininity.

2. Decision Making Style : This tool was originally made by Harren in 1984. Decision Making Style is a test of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ACDM). Each student was scored according to three different decision-making styles. There were rational, intuitive and dependent styles. This tool is consisted of 30 questions: 10 for rational, 10 for intuitive and 10 for dependent style.

The resulting data were processed by computer using SPSS program. The Mean, the Frequency Distribution, Standard Deviation, t verification, F verification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were used for statistical metho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rom this analysis outcome are as follows:

1. Type of sex-role identity among the college students showed a difference by gender. Generally androgyny was the highest and the score reduced in order of undifferentiated, femininity, masculinity. Looking into the results by gender, in the case of the male college students androgyny was the highest, undifferentiated was the second highest, and the third highest was femininity followed by masculinity while the score became higher in order of femininity, androgyny, undifferentiated, and masculinity by means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The character in the distribution of type on

sex-role identity among the college students as the sample group is that the most students were verified as androgyny type on the whole, femininity was higher than masculinity with the male college students, and in regard of the female students femininity showed the highest.

2. Decision-making style of the college students was discovered to be in order of rational, intuitive, and dependent type, with the score of rational style the highest while the decision-making style score by male and female made no difference in ranking. In gender difference of decision-making style only dependent style made gender difference and the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likely to approach decisions more dependently than the male college students.

3.. While decision-making style by sex-role identity of the college students,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then the group of identity of androgyny showed more rational decision-making than other groups, masculinity was disclosed to do intuitive decision-making, and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to do dependent decision-making style.

In rational decision-making style by sex-role identity from the viewpoint of sex androgyny and femininity were likely to do more rational decision-making than masculinity and undifferentiated with the male students while androgyny and masculinity to be more rational than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regarding the female students.

Sub-variable in sex-role identity to do intuitive decision-making is masculinity type. Masculinity of the female students was discovered to have the highest inclination to show decision-making dependent on intuition whereas femininity to be as the type making less intuitive approach on decision-making.

In case of dependent decision making style femininity

type out of sub-factors in sex-role identity was found to approach the most dependently on decision-making. Femininity and undifferentiated were revealed to have dependent decision-making in both the male and female regarding dependent decision-making style by gender.

The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examining sex-role identity and decision-making style of the college students in Jeju, grasp the relations of the two variables, and suggest the verified data necessary for student guidance.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sex-role identity has to go first in order to do rational decision-making and individual programs matching each gender will be needed rather than the integrated education of male and female on the instruction in the aim of establishing sex-role identity. Moreover from the fact that undifferentiated style out of sub-factors in sex-role identity is the second highest in case of the 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most female college students are verified as femininity type similar to the male students' position the college students can be known not to prepare for handling their own duties through rational decision-making for themselves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yet. Therefore guidance in this will be required.

## 부 록

<부록1> 성역할 정체감 유형 설문지  
<부록2> 의사결정 유형 설문지

## I. 성역할 정체감 유형검사

다음 문항들은 여러 가지 행동특성들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 문항의 특성수준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하세요.

문항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주관이 강하다	1	2	3	4	5
2	감상적이다	1	2	3	4	5
3	용감하다	1	2	3	4	5
4	부드럽게 말한다	1	2	3	4	5
5	대담하다	1	2	3	4	5
6	어린애같다	1	2	3	4	5
7	실력있다	1	2	3	4	5
8	섬세하다	1	2	3	4	5
9	의욕이 강하다	1	2	3	4	5
10	자상하다	1	2	3	4	5
11	행동적이다	1	2	3	4	5
12	정서적이다	1	2	3	4	5
13	권위적이다	1	2	3	4	5
14	단정하다	1	2	3	4	5
15	결단성있다	1	2	3	4	5
16	깨끗하다	1	2	3	4	5
17	강하다	1	2	3	4	5
18	여성적이다	1	2	3	4	5



문항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9	활동적이다	1	2	3	4	5
20	동정심이 많다	1	2	3	4	5
21	모험적이다	1	2	3	4	5
22	미적이다	1	2	3	4	5
23	야망이 크다	1	2	3	4	5
24	명랑하다	1	2	3	4	5
25	적극적이다	1	2	3	4	5
26	온순하다	1	2	3	4	5
27	진취적이다	1	2	3	4	5
28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1	2	3	4	5
29	의지력이 강하다	1	2	3	4	5
30	주위를 잘 꾸민다	1	2	3	4	5
31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32	깔끔하다	1	2	3	4	5
33	남성적이다	1	2	3	4	5
34	부끄럼을 잘 탄다	1	2	3	4	5
35	리더쉽이 있다	1	2	3	4	5
36	부드럽다	1	2	3	4	5
37	운동을 잘한다.	1	2	3	4	5
38	고분고분하다	1	2	3	4	5
39	지배적이다	1	2	3	4	5
40	다정하다	1	2	3	4	5

## II. 의사결정 유형검사

이 검사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똑 같거나 거의 같으면 '그렇다' 밑의 괄호 안에, 자신의 입장과 매우 다르거나, 상당히 다르면 '아니다' 밑의 괄호 안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단계 한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2. 나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3. 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 그렇다 ) ( 아니다 )
4.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5.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 그렇다 ) ( 아니다 )
7.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 그렇다 ) ( 아니다 )
8.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나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따른다.  
( 그렇다 ) ( 아니다 )
9. 나는 내가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10.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 그렇다 ) ( 아니다 )
11. 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철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결정을 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1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 그렇다 ) ( 아니다 )
13. 나는 중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예상될 때 그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 그렇다 ) ( 아니다 )
14. 나는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 그렇다 ) ( 아니다 )
15.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다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 그렇다 ) ( 아니다 )
16. 나는 의사결정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게 된다.( 그렇다 ) ( 아니다 )
17.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다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 그렇다 ) ( 아니다 )
18.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19.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20. 나의 인기를 떨어뜨릴 의사결정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 그렇다 ) ( 아니다 )
21.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예감 또는 육감을 중요시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22. 나는 조금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의사결정임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 그렇다 ) ( 아니다 )
23. 어떤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본다.  
( 그렇다 ) ( 아니다 )
24.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 그렇다 ) ( 아니다 )
25. 종종 내가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을 일정한 목표를 향한 진보의 단계들로 본다.  
( 그렇다 ) ( 아니다 )
26.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27.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그 결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싶다. ( 그렇다 ) ( 아니다 )
28. 나는 '이것이다' 라는 느낌에 의해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  
 ( 그렇다 ) ( 아니다 )
29. 대개의 경우 나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 그렇다 ) ( 아니다 )
30.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 그렇다 ) ( 아니다 )



※감사합니다※